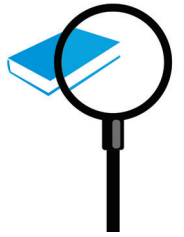


튀르키예 건축으로 조명하는 ‘아시아’ 건축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EAA S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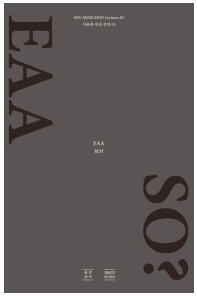
존홍·최춘웅 엮음

해의 건축가들을 초청해 강연을 비롯해 출판물을 하는 시리즈가 있다. 지난 2016년 서울대 전봉희 교수가 동문 김정식 기부금을 토대로 설립했다. 바로 서울대-목천 강연이다.

강연 시리즈는 지난 2017년 스페인의 저명한 건축가 라파엘 모네오를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8년부터는 프로그램을 아시아로 눈을 돌려 “지역 맥락에 뿌리를 두면서도 세계적 담론에 참여하는” 이들을 주목했다. 중국 건축가 리우지아룬, 베트남의 트로피컬 스페이스와 H&P 아키텍츠의 강연을 계기로 각각의 작품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출간된 세 번째 작품집은 튀르키예 건축가에 초점을 맞췄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이 아니라 건축사무소다.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EAA, SO?가 주인공이다. 특히 건축사무소에 물음표가 붙은 SO?는 그 자체로 흥미를 유발한다.

책을 엮고 기획한 이들은 건축가 겸 서울대 교수인 존홍, 최춘웅이다. 존 교수는 디자인 랩 ‘프로젝트: 아키텍처’를 대표하는 건축가이며 ALA 건축



책 제목의 일부이자 건축사무소인 EAA는 런던과 이스탄불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도시 마스터플랜 외에도 공항, 주거, 문화공간 등 폭넓은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2010년 에디르네의 이페폴 직물 공장으로 아가 칸 건축상을 수상했다.

지난 2007년에 설립된 SO?는 로마 국립21세기 미술관에 로스트 베리어를 비롯해 2024년 대구에 파빌리온을 설치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작업을 했다. 이들의 작업은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목천 강연에서 두 건축사무소를 초청한 것은 차이보다는 서로 공유하는 감각에 중점을 뒀다. 오늘의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을 두 곳 모두 인식하고 있다.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질박한 가운데서도 나름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엠레 아톨라트 EAA 대표는 ‘맥락의 세부 사항을 추적해 반대 의견과 타협하기’라는 주제의 에세이에서 박물관 호텔 안타키아와 이스탄불 회화 및 조각 박물관 프로젝트를 거론한다. 박물관 호텔 안타키아는 로마시대의 큰 도시 가운데 하나인 안티오니아 중심에 자리한다. EAA는 당시 기술자문위 위원 요청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들의 지향은 “박물관 호텔 안타키아가 위치한 주변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동시에 그 맥락이 지닌 잠재력과 기회를 누리는 것”이었다. 이 같은 모든 구조적 특징들로 인해 “이스탄불 회화 및 조각 박물관은 도시의 문화적 풍경 속에서 새롭고 독특하며 활기찬 중심지”로 부상하게 했다.

세빈제 바이라크 SO? 공동대표(MEF대학교 부교수)는 ‘주인공이 아닌 건축’을 주제로 한 글에서 플로리아 아타튀르크쉴에 대해 이야기한다. 정치 지형과 맞물려 2000년대 이후 수영장과 빌라 건설을 위해 숲의 일부가 폐쇄됐고 이후 수영장은 방치돼 있다시피 했다. SO?는 공공을 위한 강당으로 개조하자는 의견을 냈고 오래된 타일, 개폐식 지붕 등 가능한 요소를 남겨뒀다.

“유아용 수영장은 흙을 채워 겨울 정원으로” 바꾸고 수영장 기계실도 무대 뒤로 빼 대가실로 바꿨다. 수영장에 있으면 마치 역사적인 공간에 있는 느낌을 환기한다. 지붕이 열려 있어 수영장에서 새 주인인 갈매기들의 울음소리와 타일 위로 떨어지는 물소리가 정교하게 조율하는 효과를 발한다.

건축사무소에 물음표를 붙인 이유에 대한 글도 수록돼 있다. 강예린 서울대 교수는 ‘어떻게 건축사무소의 이름에 물음표가 붙었을까?’에서 SO?의 견해를 언급한다. 2023년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접했을 당시 SO?의 건축가들은 건축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안하고 있음을 느꼈다. “빈 공간을 재생·재활용하는 도구적 방법만 찾아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건축은 이제 갖는 일이 아니라 답아내는 일이다.”

〈공간서가·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AA



튀르키예의 건축사무소 SO?가 버려진 수영장을 개조해 공공을 위한 ‘물 없는 수영장’으로 바꾼 공간(위)과 건축사무소 EAA가 참여한 프로젝트 이스탄불의 산카클라 모스크의 모습.

SO?

〈공간서가 제공〉

쥬디 할머니

박완서 지음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가장 일상적인 언어로 기록해온 작가 박완서. 전쟁과 가난, 가족과 여성의 삶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그의 소설은 언제나 개인의 삶에서 출발한다. 비극을 과장하거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그 시대를 살아낸 보통 사람들의 말과 선택을 통해 사회의 구조와 인간의 본질을 드러낸다.

작가의 타계 15주기를 맞아 박완서의 대표 단편 10편을 엮은 소설집 ‘쥬디 할머니’가 출간됐다. 구병모, 김연수, 박상영, 최은영, 한강 등 한국 대표 소설가 31명에게 작품 선정을 청해 가려 실었다. 이미 널리 읽힌 작품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던 단편들도 함께 실려 박완서 문학의 폭과 깊이를 동시에 보여준다. 작가의 문장은 단순하지만 가볍지 않고 냉정하지만 차갑지 않다. 인물들은 특별하지 않지만 생생하며 이야기는 조용히 진행된다.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삶의 민낯을 드러낸다.

표제작이자 작품집의 시작을 여는 ‘쥬디 할머니’는 장성환 오 남매를 두고 혼자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쥬디 할머니의 평화로워 보이는 삶을 보여주다가 뜻밖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이어간다. 노년의 여성 인물을 통해 삶의 의지와 선택의 의미를 담담하게 그려냈다.

‘애 보기가 쉽다고?’와 ‘공항에서 만난 사람’은 전쟁 이후의 사회와 개인의 상처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드러내며 박완서 특유의 현실 인식과 서사 감각을 잘 보여준다. ‘도둑맞은 가난’, ‘부처님 근처’,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는 작가의 초기작들로, 1970년대 초 신인이었던 작가의 작품이 반세기여 지난 지금 활발히 활동중인 한국 대표 소설가들에게 최고의 소설로 뽑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학동네·1만85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서바이벌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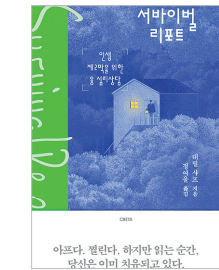
대릴 샤프 지음, 정여울 옮김

직장이 힘든 이들은 꿈에서 출근하는 악몽을 꾸고, 소풍을 앞둔 아이들은 기대감에 잠을 자면서 미소를 짓기도 한다. 꿈은 몸과 마음이 주고받는 신호이자, 일상의 균형 상태를 비추는 창이다. 집단무의식, 콤플렉스, 페르소나 같은 개념으로 알려진 카를 융의 분석심리학은 이러한 신호를 읽는 하나의 틀을 제시해 왔다. 다만 방대한 개념과 전문용어 탓에 그의 이론은 종종 난해하게 받아들여져 왔다.

캐나다 출신 융 심리학자 대릴 샤프는 ‘서바이벌 리포트’에서 이 장벽을 낮춘다. 평생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 대신 사례와 이야기로 융 심리학을 풀어낸다. 책은 소설에 가까운 형식을 취한다. 번아웃과 관계의 붕괴를 겪은 중년 남성 노먼이 상담실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가 시작되고, 독자는 상담 장면을 따라 그의 꿈과 기억, 말의 여백을 함께 들여다본다. 이 과정에서 중년의 위기가 핵심 주제로 떠오른다. 융 심리학에서 중년은 쇠퇴가 아니라 전환의 시기다. 사회적 역할에 맞춰 살아온 삶이 흔들릴 때 억눌렸던 내면의 목소리가 모습을 드러낸다.

상담 장면에는 꿈 분석과 그림 그리기, 글쓰기 같은 실제 기법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반복되는 꿈은 현재 상태를 비추는 단서가 되고, 아니마-아니무스, 그림자, 페르소나 같은 핵심 개념은 딱딱한 설명이 아니라 이해하기 쉬운 장면으로 펼쳐진다.

책이 강조하는 것은 ‘고쳐야 할 문제’보다 ‘들어야 할 신호’다. 우울과 불안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묻는 계기다.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에 갇힌 삶이 어떤 한계를 갖는지, 그림자를 외면할수록 왜 더 큰 혼란이 오는지를 짚으며 나날이 사는 길을 제시한다.



이브라, 발렌타, 하얀빛 읽는 순간, 당신의 삶이 바뀌고 있다.

〈크레타·1만78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화학

김성수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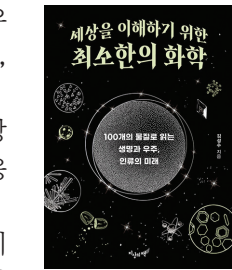
수소 원자, 산소, 질소, 도파민, 암모니아, 캡사이신, 오존... 우리 몸을 이루는 분자에서 우주를 구성하는 질서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이해하는 열쇠는 결국 화학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성수 KIST 전북 복합소재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화학’은 원자와 분자, 결합과 반응으로 움직이는 세계를 화학의 언어로 풀어낸다.

책은 100개의 화학물질을 통해 우주와 지구, 생명과 문명, 미래 기술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엮는다. 원시 우주의 수소 원자에서 출발해 지구를 이루는 광물과 대기, 생명체를 구성하는 분자, 산업과 전쟁을 견인한 합성물,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신소재에 이르기까지 물질의 이동 경로를 따라간다. 각각의 물질은 독립적인 이야기처럼 읽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주에서 생명으로, 자연에서 문명으로 이어져 온 긴 여정을 그리도록 구성됐다.

특히 저자는 화학을 일상의 정보나 흥미 위주의 교양으로 축소하지 않는다. 셀룰로스와 엽록소, 포도당과 ATP를 통해 생명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고, 청동과 강철, 암모니아와 플라스틱을 통해 문명의 성취와 그 이면을 함께 바라본다. 화학은 편리함을 만들어낸 기술이자 동시에 전쟁과 환경오염을 낳은 양날의 도구로 등장하며, 물질을 다루는 일이 곧 선택과 책임의 문제임을 환기한다.

후반부에서는 반도체와 2차전지, 신소재를 통해 다가올 사회의 윤곽을 비춘다. 같은 원리라도 어떤 물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기술의 방향과 사회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AI가 수많은 가능성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현실의 물질로 구현하는 일은 결국 화학의 몫이라는 것이다.



〈지상의책·1만98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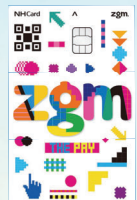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희,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누구에겐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지 평 지 점 062)381-8212~3
상 촌 지 점 062)381-6551~2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운암혁신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유타하나로마트 062)373-3235
애니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